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관상(觀相)은 심상(心相)이라든가. 얼굴 표정에는 그 때 그 때의 마음 상태가 반영되곤 한다. 좀처럼 마음의 변화나 상태를 표정에 실지 않는 사람도,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의 마음의 성향이나 개성이 표정에 담겨 나온다. 그런데 천변만화하는 마음 상태를 얼굴 모습으로 일일이 관측할 수는 없다. 수백, 수천 가지 마음을 각기 읽어낼 수 있는 표정들을 일일이 구분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웃는 표정만으로는 그 웃음이 사기꾼의 전술 표현인지 순수한 우애의 표현인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 눈물 흘리는 모양만으로는, 감동 받고 있는 것인지 원통해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인간은 같은 미소에서, 그 미소의 원천이 응축함인지 아니면 자애로운 미소를 관측해 낸다. 감동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판정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무엇이든 딱 부러지게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상대편의 생각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기 때문이다. 눈빛의 미묘한 변화, 같은 표정이지만 순간 순간 열...

이 삶의 속내를 채우는 셈이다. 그리고 그렇게 몸과 삶이 되어버린 생각은 상대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이끌어 낸다. '관계(緣起)'인 이 세상의 내용물을 형성해 간다. 부처님이 해탈 수행법(팔정도)에서 '올바른 견해(正見)'에 이어 '올바른 생각(正思)'을 세운 뜻이 참으로 깊다. 인성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견해가 무엇이나에 따라 생각의 내용이 결정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내 본능이 욕심부터 채워야 성공한다는 인생관이라면, 그의 생각은 제어되지 않는 탐욕과 거침없는 공격의 기운을 가득 담는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의 몸이 되고, 삶이 되며, 사회 관계의 색깔을 형성한다. 한의학에서는 그 과도한 탐욕과 공격의 생각들이 어떻게 건강한 몸에게 필요한 균형을 깨는 지 잘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 삶이란 사실상 순간 순간의 생각들의 총합인 셈이다. 지금 일으키는 생각 생각이 삶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해탈된 것을 이루려면, 해탈로 이어지는 생각들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법. 지금 바...

생각, 삶의 내용 채운다

비치는 미세한 기운의 변화들. 모양이든 색깔이든 아니면 기운이든 간에, 그 어떤 변화의 기미들이 구체적인 느낌으로 전달된다. 특히 목소리까지 걸치면 느낌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 느낌을 통해 우리는 한 표정에서도 수많은 마음과 생각들을 읽어내곤 한다. 어쨌거나 형상 없는 생각이 구체적인 형상이다가 그 작용과 흔적을 남긴다는 점이 주목된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생각이지만, 그 작용과 힘과 영향력은 명백하고 엄청난데, 생각의 힘과 작용을 기(氣)라는 언어로 설명하는 아니면 다른 언어로 설명하든 간에, 생각은 분명 몸과 사물에 구체적인 작용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좌와 이념의 정치적 열정이 불타 오르면 시기, 계급적 적개심이 흔히 정의와 양심을 대변하곤 할 때, 우리는 그 '타던 눈빛'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원천이 순수한 양심이요 정의감일지라도, 분노와 미움의 생각은 그의 눈빛을, 그의 관상을 바꾸어 버렸다. 살의를 품으면 살기가 몸에 배여 드러나고, 자비심을 품으면 그 온화한 기운이 표정을 바꾸고 눈빛을 변화시킨다. 생각은 그렇게 몸이 된다. 몸은 곧 삶이니, 생각

국가 도박장 개설하곤

경제행위(?)라 강변

로 이 순간, 그 생각의 물꼬를 해탈 쪽으로 터야 한다.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생각이 지혜와 자비에 부응하는가를 살펴 그 쪽으로 옮겨 놓는 노력, 그것이 '올바른 생각(正思)' 수행의 요체라고 본다. 거금 걸고 도박관에 몰두할 때 일으키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 들뜬 탐욕, 제동 걸 수 없는 이기심 따위로 채워진 생각들이라면 삶의 성숙과는 거리가 멀다. 체철로 볼 때(나는 이미 초등학교 때 오골이라는 도박상 게임에 몰두한 적이 있다), 도박관에서 발생하는 후회와 생각은 허탈한 소모와 백해무익한 열정이다. 국가가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당당한 경제 행위를 강변한다. 자본주의 시장의 불가피한 비윤리성이란 말인가. 어떻게 합리화시킬생 생명 건강과 성숙의 길은 아니다. 비 내리는 겨울 어귀, 또 한 구석에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참불자의 길

염불수행④ - 큰스님이 들려주는 염불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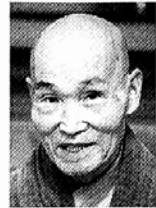
보조스님(1158~1210)

극락세계 아마타불의 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열가지 염불수행을 해야한다. 그 첫째가 모든 악행을 버리고, 바른 몸가짐으로 하는 염불인 계신염불(戒身念佛)이다. 두 번째는 실없는 말, 속이는 말, 험한 말로 지은 입을 말끔히 없애고 입을 경계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염불인 계구염불(戒口念佛)이며, 세번째가 욕심내고 화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밝히는 계의염불(戒意念佛)이다. 네번째가 움직이고 오고 가는 한 뜰 한 할 나에도 염불하는 동역염불(動念念佛)이며, 움직이지 않고



청학스님(성문사 조실)

염불은 부처님의 본원에 들어맞는 수행법일 뿐 아니라 삼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권장하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다른 수행법에 비하여 불보살의 가피가 수승하다. 염불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특정한 방법으로 소리와 음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방법이 어떠한지 염불하는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의 길에 접어 든 것이다. 소리를 내어도 좋고, 내지 않아도 좋으며, 지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언제 어디서나 좋다. 계행을 지켜서 염불하면 더욱 좋지만, 계행을 지키지 못하면 못한 대로 염불을



설산스님(정토사 주지)

염불은 중생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 가운데 하나이다. 경전을 보기 위해서는 한문을 공부해야 하고,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염불은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이 여섯 자만 부르면 된다.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뿐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아미타경>에서 아미타부처님은 10만억 국토 밖에서 항상 설법을 하고 계시니,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면 항상 곁에 오신다고 하였다.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 그 자체가 바로 극락세계인 것이다.



“열가지 염불삼매의 힘 극락세계 이를 수 있다”

하는 정역염불(靜憶念佛)이 다섯번째다. 여섯번째는 일상사 속에서 수많은 말을 하면서도 안으로 마음 흔들림 없이 행하는 어지염불(語持念佛)이며, 일곱번째가 말없이 하는 묵지염불(默持念佛)이다. 여덟번째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리는 관상염불(觀想念佛), 아홉번째는 염불하는 마음을 오로지하여 삼매의 경지로 향하는 무심염불(無心念佛)이며, 열번째는 부처님을 염하는 것으로 깨달음없이 깨닫게 되는 진여염불(眞如念佛)이다. 몸이 맑고 깨끗하고 환희 받지 않으면 열 가지 염불법을 오롯이 행할 수 없다. 마땅히 몸을 맑고 깨끗하게 한 뒤야 진리의 온갖 보배들을 쌓고 모을 수 있으며, 계율의 거울을 환히 밝게 한 뒤에야 부처님 자비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염불 그 자체로 이미 수행 진여불성과 하나 되도록”

하면 된다. 장사할 때나 밥 먹을 때에도 항상 생각념(念)자 부처 불(佛)자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능엄경>에서 '나는 일찍이 수행할 때에 염불로써 무생법인에 들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염불은 진여자성을 여의지 않는 자성선(自性禪)이라고도 하고, 또한 모든 삼매의 왕이라 하여 보왕삼매(寶王三昧)라고도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참선이 염불보다 수승한 수행법이라고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우주의 본 생명, 진여불성과 하나되는 것이 참선의 목적이듯이 염불 삼매도 결국 이와 같다. 산란스런 마음을 쉬어 우주의 본바탕인 진여불성과 하나되는 것이 염불의 목적이니, 기왕이면 가장 쉬운 방법인 염불을 통해 극락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 영원복락을 누리기를 바란다.

누구나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가피 입는 인연

염불을 하면 수행의 가장 큰 장애 중 하나인 수마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여러 신이 무섭지 않게 되고, 전과가 두루 퍼지듯 염불소리가 온 세상을 덮어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三惡道)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제불(諸佛)이 환희하므로 큰 지혜를 얻어 왕생정도에 이르게 된다. 우주에는 언제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서원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의우며 부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상통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되는 인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염불은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성불의 계기가 되고, 또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결정적인 선근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처님으로부터 배풀어지는 타력과 자기 수행의 자력이 어울려 감응하는 깊은 의의가 있는 것이다.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국내 선어록 언어 연구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관련 연구 수준은 최근에 와서 비록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하다. 우리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학(禪學)의 지면 확대가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방안과 더불어, 선어록(禪語錄) 언어(言語) 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선학의 지면 확대는 어느 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선학회 등의 주도로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를 분담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제안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여부와 일의 순서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그

러나 선 관련 연구자와 수행자들이 이러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 수준은 최근에 와서 비록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하다. 우리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학(禪學)의 지면 확대가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방안과 더불어, 선어록(禪語錄) 언어(言語) 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선학의 지면 확대는 어느 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선학회 등의 주도로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를 분담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제안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여부와 일의 순서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그

연구 분담-결집 조화 선학 지면 확대

36 선어록의 연구(4)

확대:한국선학회 등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선학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 정리하여 일반인과 학자들에게 제공한다. △선학 관련 단기 강좌 개설: 기존의 단편적인 선학 강좌와 더불어 동·하계 방학 기간 중에 일반인 및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과목과 강사진으로 단기 집중 강좌를 개설한다. △〈선학대사전(禪學大辭典)〉 기획, 출판: 일본의 〈신학 선학대사전(新編 禪學大辭典)〉(1985) 수준의 선학대사전을 장기적으로 기획, 출판한다. △국내외의 관련 기관, 연구소, 학회 등과의 교류:우선 국내의 관련 기관, 연구소, 학회는 물론 외국의 관련 사이트를 연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으로 관련 서적을 기획, 출판하거나 또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선어록 관련 국내, 국제 정기 세미나 개최:우선 국내 관련 세미나를 1년에 1회 정도 개최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 일본, 중국 등과의 국제 세미나를 개최토록 한다. 위와 같이 선학의 지면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어록 언어 전공자 등이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이미 출간된 선어록 번역에 대한 정확성 검토:특히 <한글대장경> 및 <선림 고경총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선어록 언어 입문서, 독본 간행:차적으로는 중국, 일본 등에서 출간된 해당 문헌을 번역, 소개하고, 2차적으로는 국내 및 일본 선어록을 읽기 위한 별도의 입문서, 독본 등을 정리, 출간한다.



송인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선어록언어

△선어록 역주본 출간:우선 국내에서 출간된 선어록의 번역 현황을 파악한 후, 장기적으로는 원문(原文)을 게재한 대역본(對譯本)을 출간한다. 이 때 판본 등의 문제와 역주(譯註)를 상세히 첨부하여 학술적인 가치가 있도록 유의한다. △선어록 언어 관련 국내, 국제 정기 세미나 개최:선학 관련 세미나에 언어(言語) 분야의 발표 및 토론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학계에 촉구하며, 또한 언어만을 주제로 국내 및 국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추진한다.

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알기쉽게,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판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판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판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찬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해보십시오!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1.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대원의 본존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2. 지장기도법 -생활속의 지장기도 -영가천도기도법 -종합적인 지장기도